

2020년 11월 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044-201-2511), 사무관 한 민(2517)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반 반장 이제용(044-201-2531), 사무관 이용진(2537)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044-201-2551), 서기관 황성철(2555) /제공: 11월 3일(총 3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1.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에 대해, 11월 2일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2건, 저병원성 AI 항원이 2건 확인되었고,

발견장소(시료 채취일)	고병원성 여부(확진일)	혈청형
천안 봉강천(10.21)	고병원성(10.25)	H5N8
용인 청미천(10.24)	고병원성(10.28)	H5N8
군산 만경강(10.26)	저병원성(11.1)	H7N1·N2·N3·N8(믹스형)
양주 상패천(10.26)	저병원성(11.2)	H5N3

- 11월 2일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11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일대부터 농장 주변까지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철새도래지 및 주변은 소독차(147대)와 광역방제기(81대)를 동원하였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방제드론(103대)을 투입하였다.

-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마을·농장 진입로는 소독차(230대)와 살수차(24대), 군(軍)제독차(5대)를 이용하여 소독하였다.
- 농식품부는 11월 2일, 오리협회와 협업하여 전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AI 취약 축종*인 오리의 구체적인 고병원성 AI 임상증상**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 * 오리는 시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세심한 관찰 필요
 - ** 사료섭취량 감소, 산란율 감소(종오리), 침울, 웅크림, 녹색 설사, 부리에 청색증, 안구 혼탁 증상, 신경증상(떨림·운동실조)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한돈협회와 협업하여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주말 동안 내린 비에 영향을 받은 생석회 벨트를 보강하였다.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생석회 벨트 점검사진>

- 중수본은 11월 2일부터 접경지역 내 방역차량 진입이 힘든 곳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 방제헬기를 동원하여 항공방제를 개시하였다.
- 11월 2일은 방제헬기 3대를 투입하여 연천·양구·인제 지역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를 소독하였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 첫 시행일인 11월 1일 축산차량 GPS 관제를 실시한 결과 위반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전국 가금농장은 축사 외부와 농장 외부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농장 주변 및 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환복·손소독·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